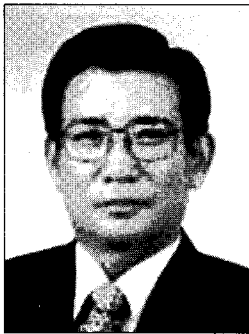


신용제일원칙, 내실성장 이뤘

가설 건축물 신축할 그린벨트 해제 기대



◀ 이완중
한덕판지공업(주) 대표이사

현대사회에서 기업이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1원칙은 무엇일까?

자사만의 독특한 상품으로 고객에게 어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업체 이름만 들어도 무조건적으로 믿음이 가는 '신용'이 아닐까 싶다.

신용이 무시되고 있는 사회, 사람들간의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 나의 발전을 위해 타인의 피해정도는 묵인돼가고 있는 시대, '신용제일원칙'이라는 기업 모토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덕판지공업(주)(대표이사 이완중)을 찾았다.

골판지 전문생산 업체인 한덕판지공업(주)은 지난 1986년 3월 한덕판지공업사로 설립, 부천

시 내동에 자리잡게 된다.

제지업계에 20여년간 몸담았던 이완중 사장은 판지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 적은 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 한덕판지공업사를 창립하게 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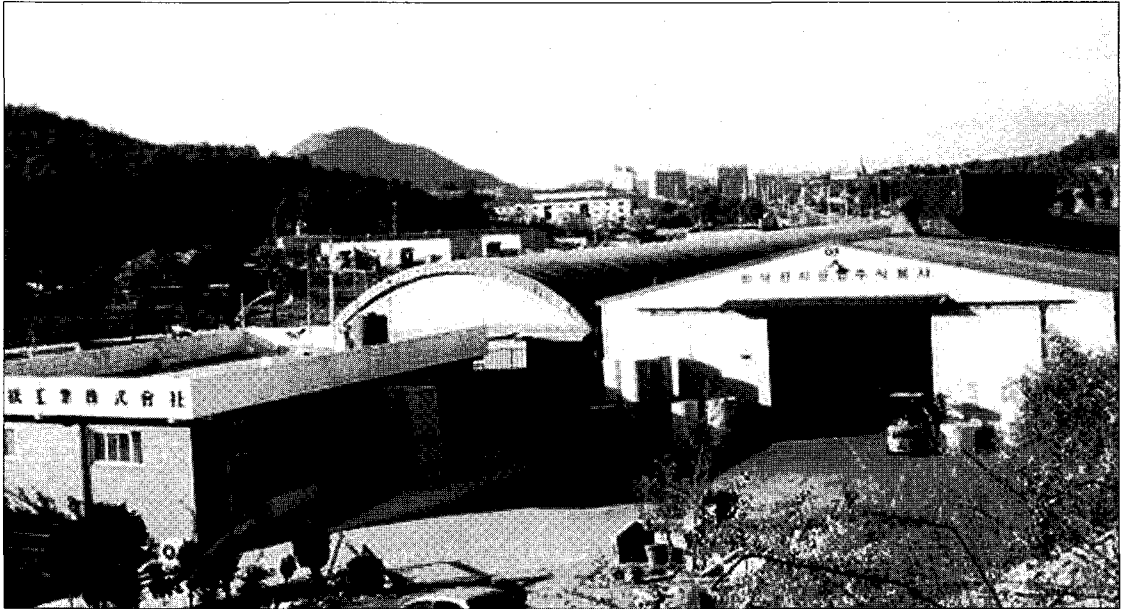
이 사장은 "문화가 발달 할수록 종이소비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과 제지업계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판지업종이 자신의 천직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완중 사장은 "자동화가 이뤄지지 못해 모든 것이 수동으로 처리돼야만 했던 창립 초기 100여평의 소규모로 10여명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동원해 한덕판지공업사를 운영해야 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한덕판지공업사는 1988년 지금의 한덕판지공업(주)으로 법인전환했으며 영업장소 역시 시흥시 대야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1994년 현재의 시흥시 미산동으로 공장을 이전한 이후, 한덕판지공업(주)은 공장을 신축하고 자동화기계 2호기를 증설, 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로써 한덕은 지폭 1,600mm의 CORRUGATOR



▲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덕판지공업(주)

1호기와 1,800mm의 CORRUGATOR 2호기 두 대를 보유, 생산에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근로자 여가 활용 위해 주간업무 고집

현재 5,000평 대지에 1,900평 건물로 1일 생산 230,000㎡의 자동화를 이뤄내고 있는 한덕판지공업(주)은 60여명의 사원들의 화합을 통해 알차고 내실있게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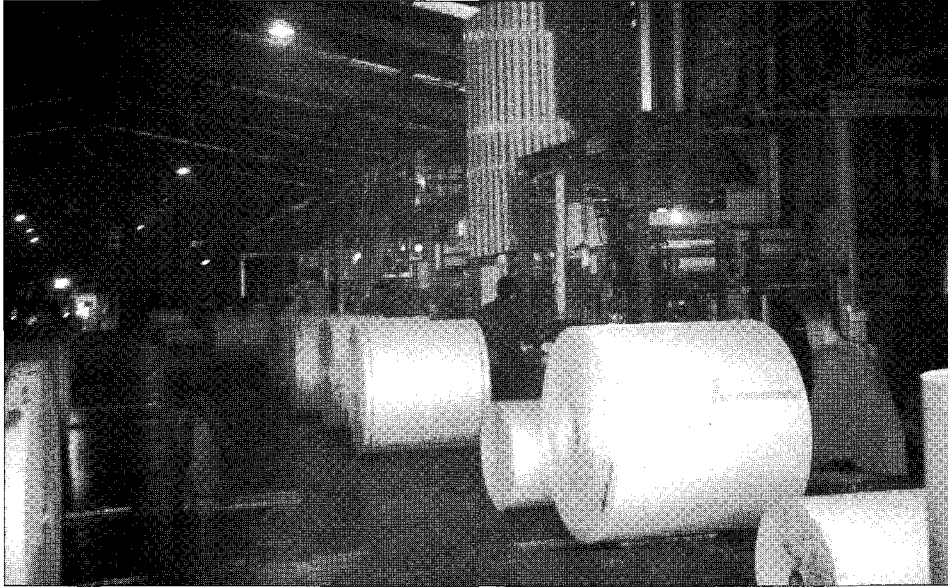
이완중 사장은 내년 3월 창립 17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무엇보다도 사원들간의 서로에 대한 배려심과 함께 장기근속자들이 많다는 점을 가장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사장은 한덕을 창립한 이래 근로자들의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해 주간작업만 고집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들에게 스스로 회사의 주인이라

고 생각하게 만드는 실천윤리를 강조, 10여년 전부터 상조회를 운영해 지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다 나은 사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숙사와 휴게실을 마련하는 등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장의 합리적인 경영과 사무관리의 선진화로 발전을 거듭해온 한덕판지공업(주)은 지난 1995년 산업은행 한마음 셋별고객으로 선정됐으며 1995년 9월 국민은행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이후 2000년 재선정 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2001년에는 경기도 지사로부터 환경중시 기업으로 공로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환경보호에도 역점을 둔 채 발전하고 있다.

현재 120여개의 지함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 BOX 골판지 포장재 생산업체 한덕판지공업(주)



◀ 한덕판지공업(주) 공장전경

의 이완중 사장은 업계 장인으로써 신용으로 인정 받는 기업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온 한덕판지공업(주)에도 시련의 시간은 있었다.

지난 1986년 하수 역류로 수해를 입어 종이를 모두 훼손하게 됐을 때와 1996년 기계 정상화를 이루지 못해 7억여원 부도가 났을 때의 두차례 고비가 있었던 것.

하지만 이완중 사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거래처로부터 종이를 더 보내 주겠다고 자금조달 제의를 받았을 때 신용을 중시했던 경영 방침이 인정받은 것 같아 오히려 뿌듯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한덕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만 한번도 약속을 어기거나 다른 업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없었다”며 “한 순간도 신용을 잃지 않도록 고집스럽게 투명경영을 실천해왔다”고 말했다.

다. 덧붙여 그는 힘든 순간 한덕을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닌 ‘한덕판지공업(주)이 내 회사라고 생각하며 일해온 사원들’이라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창립 초기 월 3억 5천천만원의 매출에서 현재는 연 2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이루고 있는 것도 제품의 우수성만큼이나 업계에 쌓인 한덕의 신용이 한 몫을 차지하는 것은 자타가 공히 인정하는 사실이다.

현재 한덕판지공업(주)은 첨단 골판지 제조 설비로 고객만족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우수한 재질을 선별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제품이 견고할 뿐 아니라 수려하다고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린벨트 지역 해제, 발전 거듭할 터

한덕판지공업(주)은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약점때문에 공장 3개동을 가설건축물로 운영해



◀ 한덕판지공업(주)의 CORRUGATOR

야만 하는 난점이 있다. 이완중 사장은 종이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만큼 물과는 상극인데 가설건축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수해철을 비롯해 비가 내릴 때마다 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덕판지공업(주)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대로 천막으로 이뤄져 있는 가설 건축물을 본 건물로 신축하고 BOX 공장을 증축해 지함업체로서도 발돋움 할 포부를 세우고 있다.

한덕인 모두는 한덕판지공업(주)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그린벨트 문제가 해결되고 한덕이 제 모습을 갖출때까지 사원 개개인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중 사장은 현재 그린벨트내 공장으로서 세금은 다 내면서 적절한 보호는 받지 못하고 있다

며 그린벨트가 해제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랐다. 마지막으로 이 사장은 종이업계뿐 아닌 중소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제값받기 운동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현재 팽배하고 있는 제지, 판지, 지함업체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창립 이래 포장산업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 온 한덕판지공업(주).

정부의 현명한 선택으로 한덕판지공업(주) 내의 그린벨트 지역 해제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길 바란다.

덧붙여 신용을 기반으로, 첨단 골판지제조설비와 좋은 제품으로 발전을 이뤄온 한덕판지공업(주)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

박초혜기자